

광양매화축제, 개화 안정성 최우선... 1월 말 개최일 확정

축제 기본계획(안) 심의... 입장료 1천원 인상·운영체계 개선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양시는 지난 29일 시청 창의실에서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화된 제25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24회 축제 결과를 공유하고 제25회 축제의 추진 방향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제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광양) 속에서 피

어나다'를 주제로, 내년 3월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축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개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기상 여건 및 개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제 개최일을 내년 1월 말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입장료는 기존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천 원 인상을 하기로 했으며, 상품권 사용처는 축제장 내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 점포, 중마시장, 수산물유통센터 등 기존 범위를 유지해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행휘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양매화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2026년 1월 중 개최일 확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완성도 높은 제25회 광양매화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사랑상품권 "최대 12% 혜택" 새해 소비 총력전

1~2월 순천사랑상품권 할인행사로 지역경제에 불씨 지핀다

순천시가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행사를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류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더해 사용 금액의 2%를 후게시백으로 제공해 최대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할인 구조를 통해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를 지역 내 가맹점으로 집중 유도하고, 상품권 구매뿐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후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용 빈도 증가 효과 기대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새해 기간에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의 세심한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역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관내 농협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우수상'

주민 손으로 가꾼 마을의 변화... 공동체 활성화 성과 인정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상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으로 진도군은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시군으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공동체 활성화와 모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성과와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우수상'

주민 손으로 가꾼 마을의 변화... 공동체 활성화 성과 인정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중심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생활 환경을 가꾸고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진도군은 올해 129개 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단 구성부터 사업 설명회 개최, 맞춤형 현장 지원, 자체 교육 운영 등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도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신면 조중마을'과 '지산면 내삼당마을'의 사례를 공유해, 마을 대표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신감과 실천 의지를 북돋웠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추진 주민들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 낸 변화"라며, "진도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함께 가꿔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성군-광주보훈병원, 군민 건강 함께 지킨다

장성군이 지난 26일 광주보훈병원과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중 장성군수, 이삼용 광주보훈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의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광주보훈병원은 접수부터 진료, 치료, 수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군민 건강 증진 사업 물론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 공직자, 2026나눔캠페인 동참으로 이웃사랑 실천

구례군은 군 소속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25,488,510원을 희망 2026나눔캠페인에 기탁하며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말 군 산하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참여가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곡성군, '장애인전담민관협업체' 회의 개최

전남 곡성군은 지난 29일 비발언덕25에서 장애인전담민관협업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곡성군 지체·시각 장애인복지 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삼강원, 곡성군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곡성지역자활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협업체에서는 공공·민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사례관리 지원, 마중물장애인 발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